



역동성넘치는 소수정예로 ‘똥똥’

디지털 색교정기 100여대 공급 성과 올려

(주)한국필름(대표이사 차의송)의 시스템사업부(부장 정진석)는 디지털윤전인쇄기 자이콘, 디지털인쇄기(대표기종 LD-6501) 및 CTP와 관련된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다. 시스템사업부가 설립된 것은 10여년에 달한다.

시스템사업부가 설립된 초기에는 컬러를 교정하는 색 교정기를 코니카로부터 도입해 공급했다. 국내에 CTP의 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색 교정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라 발 빠르게 움직인 시스템사업부의 선택은 적중했다. 디지털 교정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색교정을 책임지던 평대교정이 갖고 있는 문제였던 불

안정성과 운영 비용, 비효율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결과적으로 100여 대의 디지털 컨센서스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시스템 사업부의 존재감도 확실하게 심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시스템사업부의 조원호 차장은 인쇄기에서 직접 실행되는 인쇄교정은 인쇄기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이익을 낮추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과 색 교정에 한계를 갖는 기존 장비와 달리 베다의 농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망점의 농도를 조절, 색상의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고객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기억했다.

고객 배려한 디지털인쇄기 공급

시스템사업부는 시장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 고품질과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컬러 프린팅 시스템(현재 모델은 LD-6501)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출력 서비스 업체 및 다른 사용자가 새로운 디지털 프린팅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높은 품질의 출력과 적절한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균형 잡힌 시스템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충무로에서 시스템사업부가 공급한 디지털인쇄기를 운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반응은 간단하지만 명확하다. 공급원이 다양한 루트로 이뤄져 있지만 A/S 등을 감안할 때, 한국필름을 택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공급이 이뤄진 것은 아무래도 무조건 고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고객사의 인쇄환경을 최대한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첫 디지털윤전인쇄기 자이콘 공급

시스템사업부는 지난해, 펀치그래픽스와 자이콘 디지털 인쇄기 판매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윤전인쇄기의 공급에 나섰다. 많은 강점을 지닌 장비이지만 공교롭게 국내 공급을 발표한 5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제품 가격이 수억원 정도 오르자 구매를 계획했던 고객도 망설이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까지 총 3대의 판매실적을 올렸지만 환율의 급등과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린 것이다. 시스템사업부는 자이콘8000의 분당 속도가 빠르고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개발되어 강력한 내구성과 오류 없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달 850만장을 출력하는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별도로 유닛을 추가할 필요 없이 기본 사양만으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가격 대비 높은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환율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이 같은 자이콘8000의 성능이나 매력적인 기능이 고객을 끌어들이며 판매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사업부는 앞으로 자이콘8000이 상업인쇄 시장 뿐 아니라 직접 마케팅(DM)시장이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사무 인쇄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필름의 시스템사업부와 제휴한 펀치그래픽스는 친 환경적인 이미지와 인쇄 솔루션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자이콘 브랜드로 상업용, 서류인쇄, 산업 시장에 고품질 디지털 컬러인쇄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모품을 디자인,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사업부는 앞으로 디지털 인쇄의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는 장점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래픽 인쇄 능력 및 최대의 이익을 제공할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그파와 CTP 국내 공급 계약 체결

한편 시스템사업부는 지난 2월, 아그파코리아와 한국필름이 한국 내 공동판매에 합의하고 아그파 한국공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래픽 아트 필름 및 CTP판재, CTP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을 책임지는 부서가 되었다.

이런 결정은 CTP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춘 아그파코리아와 국내 인쇄업계에서 오랜 전통과 신뢰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한국필름이 함께 하게 되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관련 업무가 시스템사업부에 주어진 것은 그동안 디지털인쇄 부문에 매진해온데 이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시스템사업부는 일부 고객분들이 판매 대리점이 아니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필름은 아그파의 한국공식대리점이며 아그파코리아와 함께 국내 공동판매를 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시스템사업부는 CTP분야에서 신중한 시장접근과 판매 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치밀한 스테디와 함께 적합한 시장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환율이 요동치고 아직까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예상과 다른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추세를 찾아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시장을 확대하고 고객들에게도 실제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믿고 있다.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금 긴 안목으로 보아 달라는 것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것은 자문을 구해 달라는 것이다.

뛰어난 역동성으로 사내 분위기 이끌어

한국필름의 시스템사업부는 고객을 소중히 여기며 시장에 기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첨병이 되어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회사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